

# 빈곤층 아동의 또래역량\*

## The Peer Competence of Children in Poverty

이 은 주

Lee, Eun Ju

이 재 연\*\*

Lee, Jae Ye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serve differences in peer competence by children's personality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competence and characteristics of children from poor families. The subjects were 79 parents and their 4- to 6-year-old children at a kindergarten in Seoul. The instruments were Iannotti's facial drawings cards, vignettes, "roster and rating" the Family Environment Scale (FES) and the Family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FEQ).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that girls from poor families had higher levels of peer competence than boys.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peer competence of the children in poverty and family characteristics. The children's gender, knowledge of emotion, and mother's negatively dominant conduct were the factors that indicated children's behavior in peer competence. Family conflict and mother's emotional conduct did not relate to children's knowledge of emotion.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빈곤은 오랜 동안 전 인류의 사회 문제로 존재해 왔다. 현대 사회에서 국가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근본적인 해결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금까지의 접근은 빈곤

가정의 경제적 측면에만 역점을 둔 반면에, 그와 관련된 사회·심리적인 쟁점들은 부차적으로 다루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빈곤 가정이 겪는 가족성원 개개인의 문제와 가족성원간의 상호작용,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아동의 발달 상태 등의 사회·심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빈곤가족에 대한 여러 연구(Liem & Liem, 1978; Neff & Husaini, 1980)에 따르면, 빈곤

\* 본 논문은 1995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층 부모들은 다른 계층의 부모보다 정신 건강에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빈곤층 부모의 부정적인 정서상태가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힌 선행연구(Berkowitz, 1989; Patterson, 1988; Patterson, DeBarsyshe, & Ramsey, 1989; Mcloyd, 1990)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작용의 양상에 대한 구체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 한편 빈곤층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고, 빈곤층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회정서적 측면을 살펴본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아동의 또래역량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또래와의 관계가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아동의 개인적 특성이나 부모와의 관계가 아동의 또래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중류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빈곤으로 인해 다른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빈곤층 아동의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곤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이 가진 개인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또래역량의 차이와, 빈곤층 가족의 특성은 아동의 또래역량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빈곤층 아동의 또래역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빈곤층 아동의 특성에 따라 아동의 또래역량은 차이가 있는가?

1) 아동의 연령, 성에 따라 아동의 또래역량은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의 연령, 성에 따라 아동의 정서이해능력은 차이가 있는가?

3) 아동의 정서이해능력에 따라 아동의 또래역량은 차이가 있는가?

2. 빈곤층 가족의 특성과 아동의 또래역량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1)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과 아동의 또래역량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가족의 갈등과 아동의 또래역량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Ⅱ. 이론적 배경

### 1. 빈곤층의 특성

#### 1) 빈곤의 개념

빈곤의 개념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행정적·법적 빈곤 그리고 사회·문화적 빈곤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절대적 빈곤은 최저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생계비 수준이 안 되는 상태로써 '빈곤선(poverty line)' 이하의 수입을 가진 사람들을 빈곤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 상대적 빈곤은 교육, 건강, 기회 등의 사회적 조건과 자원의 결핍 상태를 의미하는 경향이 있다(Townsend, 1970). 다음으로 빈곤의 법적·행정적 개념은 생활보호를 위해서 정책적·사회보장적 차원의 목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 다른 개념으로 빈곤의 사회·문화적 관점은 빈곤을 단순히 물질적 자원의 결여인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빈곤선의 개념만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박탈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적 가치의 전반적인 상대적 결핍상태로 이해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권오훈, 1991).

이러한 빈곤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제기되는 이유는 사회발전에 따라 절대적 빈곤상태에서는 벗어났다고해도 계층간의 사회적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어, 상대적 빈곤이 갈등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빈곤의 개념은 절대적인 물질의 결핍뿐 아니라 교육적, 문화적 혜택을 받을 기회의 부족과 열악한 주거환경, 심리적 박탈감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 2) 빈곤층 아동의 특성

심한 경제적 박탈을 경험한 5~10세 아동들은 화를 내는 빈도와 호전적인 성향, 부정적, 공격적인 행동경향이 연령에 따라 증가되었다(Elder et al., 1984). 즉, 아동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빈곤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빈곤층 남아들은 중·상류 남아와 비교해 볼 때, 어머니의 보호와 지지가 부족하여 특별히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빈곤층 여아들은 중·상류층보다 더 많은 어머니의 지지를 받게 되며, 이러한 차이는 청소년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lder, 1979). 따라서 빈곤층 아동들은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기술이 부족하고 낮은 사회정서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 또래관계에도 어려움을 느낀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 3) 빈곤층 부모의 특성

빈곤층 부모들은 정서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계층보다 지지적이고 민감한 부모역할의 수행능력이 더 적을 뿐 아니라, 아동양육에서 아동이 복종하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문제상황에서 아동과 논의를 거의 하지

않으며, 아동을 훈육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신체적 처벌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onger, McCarty, Yang, Lahey, & Kropp, 1984; Gecas, 1979; Peterson & Peters, 1985; Portes, Dunham, & Williams, 1986). 그리고 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빈곤층 부모들은 아동을 칭찬하는 빈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아동이 사회정서적 욕구를 명백하게 표현할 때에도 거의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층 가정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의 정서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부모의 불안정한 정서는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 2. 또래역량과 관련변인

역량(competence)이라는 개념은 아동의 능력을 지칭하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구조로 사용되고 있으며(Edgar, 1980), 어떤 결손이나 결함보다는 긍정적인 능력을 더 강조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다(Wine, 1981). 역량이라는 용어는 White(1960)가 주위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능력을 지칭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개인과 환경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역량이 발달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역량의 발달은 언어와 사회적 기술(social skill), 호기심과 문제해결 기술의 발달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언급하였다. 즉, 역량이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대처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또래역량이란 또래에게 잘 수용될 수 있는 행동양식으로 반응하고 또래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은 또래와 상호작용을 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먼저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 할 수 있어야 하며, 아동의 정서이해능력은 또래에 대한 반응과 또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Field & Walden, 1982; Gnepp, 1989; Goldman, Corsin, & DeUrioste, 1980; Putallaz, 1987). 그리고 또래와의 상호작용 행동은 아동의 정서적 상태이외에도 아동의 연령,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Baumrind와 Black(1967)의 연구에 따르면, 남아는 더욱 활동적이고 사교성이 풍부하며 자기확신적인 반면, 여아는 주로 언어적으로 대인관계를 수행해 나갔고 의존적이며 회피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MacDonald와 Parke(1984)는 또래집단에서의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수용에 관련된 부모와 아동간의 관계에 중점을 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긍정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언어적으로 자극을 주는 부모를 가진 아동이 또래에게 인기가 있었고 사회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빈곤층 아동의 또래역량

일반적으로 빈곤층 아동의 인간관계는 중·상류층 아동들에 비해 바람직하지 않은데(이규환, 1978), 이것은 빈곤현상의 경제적인 결핍 이상의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부모들은 권위주의적이고 체벌을 사용하는 훈육을 더 많이하고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대화보다는 일방적인 명령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긍정적 상호작용을 받지 못한 아동들은 또래와 긍정적 상호작용 기술을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언어적 수단과 유용한 방법을 배우고 익힐 기회가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Downey & Coyne, 1989; Rollins &

Thomas, 1979).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빈곤층 아동들은 빈곤으로 인해서 과생되는 부차적인 영향, 즉 부모들의 부적절한 양육태도나 빈곤으로 인해 형성될 수 있는 아동들의 낮은 자아존중감, 상호작용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서 또래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빈곤층을 주거지 단위로 개념지었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서울특별시 저소득 밀집지역 현황자료(1990)를 근거로 하여 신림 7동과 월곡 4동에 있는 어린이집, 봉천 6동의 유치원 원아 79명과 그 어머니 79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신림 7동의 경우에 관악구 구의원 사무실에서 소개를 받아 재개발 지역내에 있는 어린이집 3곳에서 아동 41명과 어머니 4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월곡 4동에서는 재개발 지역에 인접한 사회복지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1곳을 임의로 선정한 다음 부모의 소득을 고려해서 아동 27명과 어머니 27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봉천 6동의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에 근접해 있는 유치원을 임의로 선정해서 소득에 따라 아동 21명과 어머니 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대상아동 79명중 남아가 38명, 여아가 41명이었으며, 연령별로 보면 만 4세 아동이 41명, 만 6세 아동이 38명이었다. 또 만 4세 아동의 평균연령은 4년 3개월( $M=4.27$ ,  $SD=0.58$ )이었고, 만 6세 아동의 평균연령은 6년 1개월( $M=6.08$ ,  $SD=0.45$ )이었다. 한편 가족의 월평

균 소득은 91~110만원이 29.1%로 가장 많았고 71~90만원이 25.3%, 51~70만원이 16.5%로 나타났으며, 사용하는 방수는 2개가 55.7%이었고 1개가 26.6%로 82.3%가 2개 이하의 방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부모의 경우 아버지의 연령은 30~39세가 76.3%로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이 15.8%, 30세 미만은 7.6%였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30~39세가 55.8%, 30세 미만이 31.6%, 40세 이상은 2.6%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 56.4%, 대졸 20.5%, 중졸 16.7%로 고졸 이상이 79.5%였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고졸 58.2%이고, 중졸 29.1%, 대졸 8.9%로 고졸이상이 67.1%로 조사되었다. 또한 아버지의 직업은 판매직이 26.9%로 가장 많았고, 숙련직 24.4%, 사무직 16.7%, 단순노무직 11.5%이었고, 어머니의 직업은 주부가 73.4%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에서 전문직을 가진 경우는 없었으며, 어머니도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종사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측정 도구

### 1) 아동의 또래역량 측정도구

아동의 또래 수용도 척도는 Asher와 Singleton(1979)의 학급명단 평정척도(roster-and-rating)를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각각의 아동이 반 아동들에게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적합한 친구와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함께 노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재미없다’(1점), ‘그저 그렇다’(2점), ‘재미있다’(3점)까지 리커트 3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아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점 척도에 3가지 얼굴표정을 그려 넣었다. 또한 여아는 여아의 또래 점수만을, 남아는 남아의 또래 점수만을 사용하였다. Asher

등(1979)이 보고한 검사-재검사(1개월)의 상관은  $r=.80$ 의 신뢰도를 보였다.

또한 아동의 또래역량에 대한 교사평가 척도는 정영숙(1992)과 김해영(1994)이 사용한 아동의 사회적 역량 척도 중에서 또래관계에 관한 14문항만을 선정해서 사용하였고, 이 척도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 5점 척도로 평점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또래역량은 높은 것으로 보았다. 이 척도의 문항은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각 아동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척도의 신뢰도를 측정된 결과 Cronbach  $\alpha=.89$ 였다.

### 2) 아동의 정서이해 측정도구

표현이해(expression knowledge) 척도는 표현명명(expressive labeling)과 수용적 이해(receptive comprehension)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Iannotti(1985)의 얼굴표정 그림카드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표현이해 척도는 4가지 영역(기쁘다, 슬프다, 화가 난다, 무섭다)으로 구분되었으며, 이 그림카드는 성(性)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져 있다. 이 척도에 대한 반응평점은 아동이 정확히 반응하면 2점, 유사반응과 행동묘사를 하면 1점, 무반응과 반대 반응을 하면 0점을 주었다.

그리고 상황이해 척도는 아동이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4가지 영역별로 각 2문항씩 8문항의 상황설명 척도(예:○○의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는 어떤 얼굴을 하게 될까?)와 그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 대한 반응 점수는 아동이 그 상황내용에 정확히 반응하면 2점, 유사반응을 하면 1점, 반대 반응은 0점으로 되어있으며, 아동의 반응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은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 3) 가족 특성 측정도구

가족 내에 있는 갈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Moos와 Moos(1981)의 The Family Environment Scale(FES)을 정영숙(1992)이 수정, 보완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 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노여움, 공격성과 갈등의 양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Cronbach  $\alpha=.75$ 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Halberstadt(1986)의 The Family Expressiveness Questionnaire(FEQ)를 본 연구자가 번안해서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의 문항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위해 아동학 전공교수 1인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5인에게 안면 타당도를 실시했다. 이 척도는 특별한 표현행동에 대한 자기 보고식 측정 도구이며, 4가지 하위척도(긍정적-지배적, 긍정적-순종적, 부정적-지배적, 부정적-순종적)를 가진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73$ 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연구 절차 및 분석방법

본 조사는 1995년 9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되었다. 이 기간동안 아동은 자유놀이 시간과 등·퇴원 시간에 교무실에서 본 연구자와 보조연구자 1인에게 개별면접을 받았다. 그리고 어머니용 설문지는 아동이 집에 가져가서 어머니가 작성한 후에 다시 가져온 것을 회수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에는 척도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 및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른 또래역량과 정서이해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하였고, 아동의 정서이해능력과 또래역량의 관계, 가족특성과 또래역량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빈곤층 아동의 또래 역량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빈곤층 아동의 특성에 따른 또래역량

빈곤층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른 또래수용도와 교사가 평가한 또래역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먼저 빈곤층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른 또래수용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동의 성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F=3.72, p<.05$ ), 연령에 따른 주효과와 성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여아( $M=2.44$ )가 남아( $M=2.18$ )보다 또래가 평가한 역량이 높았다(표 1 참조). 이 결과로 여아는 남아보다 또래에게 더 많이 수용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빈곤층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른 교사가 평가한 또래역량의 차이를 보면, 아동의 성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F=3.51, p<.05$ ), 연령에 따른 주효과와 성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 역시 여아( $M=45.15$ )가 남아( $M=41.16$ )보다 또래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즉 교사들은 빈곤층 여아들의 또래역량이 남아보다 높다고 평가하였다. 이로써 빈곤층 여아는 또래평가나 교사평가 모두에서 남아보다 더 높은 역량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표 1〉 빈곤층 아동의 성별에 따른 또래역량

구분	성별	N	M	SD
또래수용도	남	38	2.18	0.48
	여	41	2.44	0.65
교사가 평가한 또래역량	남	38	41.16	11.01
	여	41	45.15	7.91

다음 성과 연령에 따른 정서이해능력의 차이를 이원변량분석한 결과, 표현이해능력에서 빈곤층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 $F=7.20, p<.01, F=21.70, p<.001$ ), 성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빈곤층 아동은 남아( $M=4.11$ )와 여아( $M=4.78$ ), 4세( $M=3.83$ )와 6세( $M=5.08$ )간에 표현이해능력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여아는 남아보다 6세 아동은 4세 아동보다 표현이해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표 2 참조). 또 성과 연령에 따른 상황이해능력의 차이를 이원변량 분석한 결과, 빈곤층 아동의 연령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F=22.45, p<.001$ ), 성에 따른 주효과와 성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빈곤층 아동은 4세( $M=10.61$ )와 6세( $M=12.7$ )간에 상황이해능력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6세 아동은 4세 아동보다 표현이해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정서이해능력

정서 이해	성 별				연 령			
	남(N=38)		여(N=41)		4세(N=41)		6세(N=38)	
	M	SD	M	SD	M	SD	M	SD
표현 이해	4.11	1.50	4.78	1.13	3.89	1.45	5.08	0.91
상황 이해	11.32	2.30	11.95	2.29	10.61	2.22	12.76	1.84
전 체	15.42	3.34	16.73	2.93	14.49	3.04	17.84	2.32

한편 〈표 3〉은 빈곤층 아동의 정서이해능력과 또래역량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두 변수간에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동의 상황이해능력의 경우는 또래수용도와  $r=.21$ 의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빈곤층 아동의 상황이해능력이 높을수록 또래수용도가 높아졌다. 또한 교사가 평가한 또래역량은 표현이해능력과  $r=.23$ , 상황이해 능력과는  $r=.21$ 의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교사는 아동의 정서이해능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또래역량을 높다고 평가하였다.

〈표 3〉 빈곤층 아동의 정서이해능력과 또래역량과의 상관관계 (N=79)

	또래수용도	교사가 평가한 또래역량
표현이해	.09	.23*
상황이해	.21*	.21*
전 체	.20*	.25*

\* $p<.05$

2. 빈곤층 가족의 특성에 따른 아동의 또래역량

빈곤층 가족의 특성은 크게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과 가족간의 갈등으로 나누어 졌으며 〈표 4〉

는 이러한 빈곤층 가족의 특성과 아동의 또래역량과의 상관 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그 결과 특히 어머니의 부정적-지배적 특성은 또래수용도와  $r = -.20 (p < .05)$ 의 부적 상관이 있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부정적-지배적 특성이 낮을수록 아동의 또래수용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족 갈등과 교사가 평가한 아동의 또래역량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24, p < .05$ ). 즉, 교사들은 가족간의 갈등이 많을수록 아동의 또래역량을 낮게 평가하였다.

〈표 4〉 빈곤층 가족의 특성과 아동의 또래역량과의 관계

변인	또래수용도	교사평가 또래역량
모의 정서적 특성		
긍정(전체)	-.18	-.15
긍정-지배	-.17	-.15
긍정-순종	-.19	-.11
부정(전체)	-.21*	.10
부정-지배	-.20*	.06
부정-순종	-.18	.10
가족갈등	-.01	-.24*

\* $p < .05$

### 3. 빈곤층 아동의 또래역량 예측 변인

〈표 5〉는 빈곤층 아동의 또래수용도를 예측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성, 연령, 표현이해 능력, 상황이해 능력,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 가족갈등을 독립 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또래수용도 조사결과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 = 2.11, p < .05$ ), 이와 관련하여  $R^2 = .24$ 로 전체 변인의 설명력이 24%였다. 독립 변인 중 통계적

으로 유의한 변인을 살펴보면 아동 변인에서는 아동의 성( $\beta = -.28, P < .05$ )과 상황이해능력( $\beta = .23, P < .05$ )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 중에서는 부정적-지배적 특성( $\beta = -.26, p < .05$ )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아동의 또래수용도는 여아일때, 상황이해능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부정적-지배적 특성의 성향이 적을수록 높아졌다.

〈표 5〉 빈곤층 아동의 또래수용도 예측 변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N=79)

예측변인	b	SE	$\beta$
아동변인			
성**	-.16	.08	-.28*
연령	.26	.14	.22
표현이해	.02	.06	.06
상황이해	.06	.04	.23*
가족변인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			
긍정-지배	-.01	.04	-.04
긍정-순종	-.06	.04	-.22
부정-지배	.06	.03	-.26*
부정-순종	-.02	.04	-.07
가족갈등	-.02	.02	-.14

$R^2 = .24, *p < .05,$

\*\*아동의 성은 더미 변수로 처리하였음

b: 표준화되지 않은 회귀 계수, SE: 표준 오차

$\beta$ : 표준화된 회귀 계수

그리고 〈표 6〉은 교사가 평가한 또래역량의 예측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한 결과이다. 교사가 평가한 빈곤층 아동의 또래역량을 예측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결과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F = 1.72$ ), 이와 관련하여  $R^2 = .20$ 으로 약 20%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로 독립 변인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은 아동 변인에서는 표현 이해능력( $\beta=.23, p<.05$ )으로 나타났다. 또 가족 변인 중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 중 부정적-순종적 특성( $\beta=.23, p<.05$ )과 가족간의 갈등( $\beta=-.27, p<.01$ )이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교사들은 아동의 표현이해능력이 높을수록, 가족갈등이 적을수록, 어머니의 부정적-순종적 특성이 높을수록, 또 가족간의 갈등이 낮을수록 아동의 또래역량을 높게 평가하였다.

〈표 6〉 빈곤층 아동의 교사평가 또래역량 예측 변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N=79)

예측변인	b	SE	$\beta$
아동변인			
성	2.37	2.34	.12
연령	-1.12	1.41	-.12
표현이해	1.61	1.05	.23*
상황이해	0.48	.62	.12
가족변인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			
긍정-지배	-.00	.59	.00
긍정-순종	-.76	.65	-.18
부정-지배	-.13	.53	-.03
부정-순종	1.04	.64	.23*
가족갈등	-.58	.27	-.27*

$R^2=.20, *p<.05$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층 아동의 또래역량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단의 또래수용도 점수에서 여아는 남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음으로써 여아가 다른 아동과 상

호관계를 더 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교사들도 여아가 남아보다 더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한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Langner (197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4세 아동과 6세 아동의 또래역량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층 아동의 정서 이해능력 중 상황이해능력은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표현이해능력은 여아가 더 높았다. 또 연령에 따라서 표현이해능력과 상황이해능력에 차이가 있었는데 6세 아동이 4세 아동보다 더 높은 능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따라 정서 이해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Ganer(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다음으로 빈곤층 아동들의 정서이해능력 중에서도 상황이해능력이 높은 아동들은 또래에게 더 많은 수용을 받았다. 또 교사들은 상황이해능력과 표현이해능력이 모두 높은 아동들을 다른 아동들과 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비교해서 중류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Asher, Renshaw, & Hymel, 1982)에서도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고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아동들은 또래수용도가 높았다. 즉, 아동들은 계층에 관계없이 그 상황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아동들과 보다 더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빈곤층 아동의 또래역량은 가족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가족 특성은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과 가족갈등으로 구분되었는데, 특히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은 또래역량 중에서 또래수용도와 부적 상관 관계가 있었고, 가족갈등은 교사가 평가한 또래역량과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류층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 연구(이혜영, 1986; MacDonald & Parke, 1984)에서 어머니의 부정적 태도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부정적 태도는 어느 계층에서나 아동의 또래관계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 빈곤층 가족이 겪는 갈등은 아동의 또래수용도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지만 가족갈등이 높을수록 교사가 평가한 아동의 또래역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빈곤층 가족의 갈등상황이 아동의 또래관계와 간접적으로 관계된다는 선행 연구(Cummings, 1987; Cummings & Cummings, 1988; Roberts & Strayer, 1987)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중류층에 대한 연구(김영숙, 1978)에서도 가족의 분위기가 적대적이고 거부적일수록 아동의 또래역량이 낮았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은 빈곤층 뿐만아니라 중류층 아동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빈곤층 아동의 성별, 연령, 표현이해능력, 상황이해능력,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 가족갈등 중에서 빈곤층 아동의 또래역량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먼저 빈곤층 아동의 또래수용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의 성, 상황이해능력, 어머니의 부정적-지배적 정서특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층 아동의 교사가 평가한 또래역량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은 아동의 표현이해능력, 어머니의 부정적-순종적 정서특성과 가족갈등으로 밝혀졌다.

끝으로 빈곤층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과 아동의 아동의 또래역량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빈곤층 지역의 유아교육 기관에서 부모교육을 통하여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태도를 감소시킨다면, 빈곤층 아동들은 보다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할 것이다. 이와함께 지역사회기관에서 빈곤층 가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을 줄이기 위한 프

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아동들이 가족갈등으로 인해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권오훈(1991). 도시빈곤층의 형성과 사회구조적 특성. 현대 한국사회문제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p. 45-68.
- 김해영(1994). 저소득층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영(1986).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관한 일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숙(1992). 가족의 사회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1990). 인구주택총조사.
- Asher, S. R., Singleton, L. C., Tinsley, B. R., & Hymel, S. (1979). A reliable sociometric measure for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5*, 443-444.
- Berkowitz, L. (1989).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Examination and re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 59-73.
- Conger, R. D., McCarty, J., Yang, R. K., Lahey, B. B., & Kropp, J. P. (1984). Perception of child, child rearing values and emotional distress as mediating links between environmental stressors and observed matern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 2234-2247.
- Cummings E. M., & Cummings, J. S.

- (1988). A process-oriented approach to children's coping with adults' angry behavior. *Developmental Review*, 8, 296-321.
- Downey, G., & Coyne, J. (1989).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Edgar, D. (1980). *Introduction to Australian Society*. Sydney: Prentice-Hall.
- Elder, G., Liker, J., & Cross, C. (1984). Parent-child behavior in the Great Depression: Life course and intergenerational influences. In P. Baltes & O. Brim(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6(pp. 109-158).
- Field, T. M., & Walden, T. A. (1982). Production and discrimination of facial expressions by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1299-1311.
- Gecas, V. (1979). The influence of social class on socialization. In W. Burr, R. Hill, F. Nye, & I.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Research-based theories*, 1(pp. 365-404).
- Gnepp, J. (1989). Personalized inferences of emotions and appraisals: Component processes and correlate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277-288.
- MacDonald, K., & Parke, R. D.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 McLoyd, V. C. (1990). The impact of economic war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 Patterson, G. (1988). Stress: A change agent for family process. In N. Garnezy & M. Rutter(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pp. 235-264).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Patterson, G. R., DeBaryshe, B. D., & Ramsey, E.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329-335.
- Portes, P., Dunham, R., Williams, S. (1986). Assessing child-rearing style in ecological settings: Its relation to culture, social class, early age intervention and scholastic achievement. *Adolescence*, 21, 723-735.
- Putallaz M. (1987). Maternal behavior and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58, 324-340.
- Roberts, W., & Strayer, J. (1987). Parents' responses to the emotional distress of their children: Relations with children's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415-422.
- Rollins, B., & Thomas, D. (1979). Parental support, power, and control technique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In W. Burr, R. Hill, F. Nye, & I.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Research-based theories* 1(pp.317-

364).

- Townsend. P. (1970). *Poverty as relative deprivation in poverty, Inequality and Class structured by Dorthy Wedderbur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ne, J. D. (1981). From defect to competence. In J. D. Wine(Eds.). *Social Competence*. New York: Guilford Press.